

## 드라마 『오징어 게임2』의 중국어자막 분석

장신열(張新悅)\* · 이근석(李根碩)\*\*

### 목 차

1. 제목
2. 번역분석
  - 1) 간체와 번체 자막 비교
  - 2) 한자어
  - 3) 문화소1: 욕, 은어, 속어
  - 4) 문화소2: 속담, 격언, 관용구
  - 5) 문화소3: 기타 어휘들
  - 6) 오역과 어색한 번역
  - 7) 화제의 번역
3.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25년 1월 넷플릭스에 공개된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중국어 자막(간체 및 번체)을 분석해 번역품질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한국 영상 콘텐츠의 최신 중국어 번역 현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논문은 시즌 1에 이은 후속 연구로서, 오역, 어색한 번역, 다양한 문화소의 번역 양상, 그리고 화제가 된 대사의 처리 방식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분석 결과, 시즌 2에서는 시즌 1과 다르게 간체(중국 본토)와 번체(주로 대만) 자막이 확연히 구별되어 제작됐음을 확인했다. 한자어의 직역으로 인한 어색함은 거의 해소됐으며, 오히려 한자라는 공통분모 덕분에 번역 효과가 극대화된 부분도 눈에 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수많은 문화소 역시 다양한 번역 전략을 채택해 효과적으로 옮겨졌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욕설과 비속어가 여전히

\* 충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통번역대학원 석사과정생(제1저자)

\*\* 충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교신저자)

히 시즌 1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순화되어 번역됐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번역 기술의 문제가 아닌, 중국과 대만의 방송규정이나 관습적으로 적용되는 윤리적 허용 기준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오역이나 어색한 번역은 매우 적었고, 발견된 문제들도 드라마 감상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이었다. 전반적으로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중국어 번역 수준은 시즌 1보다 훨씬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필자가 접한 한중 영상 콘텐츠 중 최고의 번역품질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키워드:** 오징어 게임 2, 한중번역, 문화소 번역, 비속어 번역, 넷플릭스 번역

## 1. 서론

2025년 1월 2일 공개된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공개 5일 만에 넷플릭스(Netflix)가 서비스되는 93개국 전체에서 시청 순위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시즌 2의 작품성이나 재미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지라도, 『오징어 게임』의 새로운 시즌들이 이전 기록들을 경신해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시즌 1의 전례 없는 성공에 힘입어 막대한 자본과 기술, 인력이 아낌없이 투입된 시즌 2는 현재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상업적 성취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번역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시즌 1보다 훨씬 풍부한 자본으로 제작된 시즌 2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제작된 자막들 역시 최고 수준의 번역품질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오징어 게임』 시즌 2(총 7화)의 모든 중국어 자막을 기본 텍스트로 삼아 그 번역품질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미 『오징어 게임』 시즌 1의 중국어 자막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자연스럽게 시즌 1 후속 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다. 본문에서는 시즌1과의 비교를 포함하여 오역, 어색한 번역, 각종 문화소(文化素)의 번역 양상, 그리고 화제가 되었던 대사들이 어떻게 중국어로 옮겨졌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을 통해 한국 영상 콘텐츠 중국어 번역의 최신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더 나아가 한중 영상 번역의 품

질 기준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사용되는 주요 번역 용어와 사례분석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출발어(Source Text)는 ST, 도착어(Target Text)는 TT로 각각 표기한다.

<예시 00> 0화, 00:00

ST (Source Text): 한국어 자막

TT1 (Target Text 1): 간체(简体) 자막

TT2 (Target Text 2): 번체(繁體) 자막

TT3 (Target Text 3): 필자 수정 간체 자막

## 2. 번역분석

### 1) 간체와 번체 자막 비교

중국(中華人民共和國)에서는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주요 콘텐츠를 보면 대부분 중국어 간체자막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학이나 사업 혹은 기타 여러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적지 않은 본토 중국인들의 수<sup>1)</sup>를 고려한다면 그들을 위한 간체자막을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일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당연한 일이기도 할 것이다.

『오징어 게임』 시즌 1의 간체자막 분석 결과, 대만에서만 사용되는 어휘들이 상당수 사용되었음을 확인<sup>2)</sup>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황들은 번체자막을 기반으로 약간의 수정을 거쳐 간체자막을 제작했거나, 혹은 간체자막도 대만사

1) 2020년 UN DESA의 중국 출신 국제 이주민 통계 (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 자료에 따르면 10,461,170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2) 우박혜, 이근석,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중국어 자막 분석」, 『한중언어문화연구』 제64집, 2022. 240-243쪽 내용참고.

람이 담당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시즌2의 상황은 어떠할까? 우선 엔딩 크레딧(ending credits)을 통해 간체(李江珊)와 번체 번역가(常鈺)가 각기 다르다는 사실은 확인이 가능하였다. 실제 두 자막을 아래 표와 같이 나란히 단순히 비교해 보기만 해도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예시1> 1화 간체-번체 병렬비교

	한국어	간체	번체
1	어디를 그렇게 가는 거지?	你這樣要去哪里?	你要去哪裡?
2	갈 곳이 없을 텐데	你應該無處可去吧	你無處可去吧
3	취세끼처럼 숨어서 떠들지 말고	別像鬼祟的老鼠一樣躲起來耍我	不要像老鼠一樣鬼鬼祟祟
4	내 앞으로 나와	有本事出來見我	給我滾出來
5	넌 그 비행기를 타야했어	你應該上那架飛機的	你應該搭上班飛機的
6	안전모 미착용입니다 운전면허증 제시해 주세요	你沒戴安全頭盔 請出示駕照	未戴安全帽, 駕照看一下
7	안전모 미착용 벌칙금 2만 원입니다	不戴安全帽罰款兩萬韓元	未戴安全帽罰鍰兩萬韓元
8	너 인마. 짬새 소리나 들으려고 여기로 보내 달라고 했나?	你這臭小子 調來這裡 是爲了听別人叫你“蠢豬”的嗎?	你是爲了被罵“臭條子” 才調過來的嗎?
9	단무지랑 양파에 식초 뿌렸었나요?	您喜歡給腌蘿卜和洋蔥加醋嗎?	你吃小菜加醋嗎?
10	아, 오래돼서 반장님 취향이 기억이 안 나네	時間太久了 我都不太記得你的口味了	太久不見, 我都忘記了
	....	....	....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개별 사례들을 통해 실제 간체와 번체 자막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예시2> 4화 55:34

ST: 저는 6.25 때 살아남은 장금자 씨 아들

TT1: 我是在朝鮮戰爭中幸存下來的張金子的兒子

TT2: 我是挺過韓戰的張金子女士之子

6.25의 공식명칭은 “한국전쟁”이다. TT2에는 “한국전쟁”의 줄임말인 “한전”이, TT1에서는 중국식 공식명칭인 “조선전쟁”이 사용되었다. 전쟁의 주체를 한국인지 북한인지를 다르게 보는 양안(兩岸)의 역사적 관점이 반영된 번역이다. 이는 단순히 간체와 번체 번역의 차이를 넘어, 정치적, 역사적 입장이 어떻게 번역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예시3> 1화 09:10

ST: 그냥? 뭐, 아주 그냥 모텔전문가시네, 어?  
 TT1: 你就是知道? 你是**宾馆达人**嗎?  
 TT2: 就是知道? 你是**汽車旅館專家**嗎?  
 TT3: 你就是知道? 怎么, **天天开房**嗎?

“모텔(motel)”은 본래 미국에서 자동차로 장거리를 운행하는 여행자들이 이용하기 쉽게 객실 가까이 주차장이 있는 호텔을 말한다. 이 단어는 현재 한국에서는 호텔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숙박업소를 뜻한다. 드라마의 맥락상 여기서 말하는 모텔은 “러브호텔(Love Hotel)”이다. TT2는 영어 모텔을 직역하였고, TT1은 “宾馆(bīnguǎn)”이라는 말로 현지화 번역을 하였지만, 이 두 단어 모두 러브호텔의 의미, 퇴폐적인 장소라는 의미는 결핍되어 있다. TT1, TT2의 “달인(达人)”이나 “전문가(專家)”란 번역 역시 한국어 대사의 직역으로 이 두 표현 모두 어색한 번역투이다. 따라서 TT3에서 “퇴폐”와 “러브호텔”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대륙과 대만에서 모두 통용되는 “카이방(开房)”<sup>3)</sup>이란 속어를 사용하여 수정번역을 제시하였다.

<예시4> 5화 01:01:41

ST: 사람은 역시 참 변하지 않는 거야.

3) “開房”이라는 속어는 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실제 중국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 제목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女子接一陌生电话后瞒着丈夫去**开房**”, “太原男子疑妻子出轨, 尾随发现有**开房**嫌疑”, “长沙情侣酒店**开房**亲密行为意外曝光, 酒店一句托辞坚决不公开道歉”. 모두 불건전한 러브호텔을 의미하고 있다.

TT1: 果然人都是江山易改本性難移

TT2: 牛牽到北京還是牛

ST의 대사는 담담하면서도 냉소적인 말투로 “인간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대사를 TT1에서는 “果然人都是江山易改本性難移”라는 중국 속담으로 번역했다. 이 속담 또한 “역시 사람은 강산은 바뀌지 않던 본성은 고치기 어렵다”는 뜻으로 원문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TT2는 “소를 베이징까지 끌고 가도 소는 여전히 소일 뿐이다(牛牽到北京還是牛)”라는 유모와 풍자를 곁들인 또 다른 속담을 활용했다. 이 속담 역시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도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TT2 속담의 경우 대만을 중심으로 한 민남어(閩南語)권에서만 사용된다는 사실<sup>4)</sup>이다. 자주 사용되며 유머와 풍자를 더 한다는 특징이 있다. <예시 4>는 이처럼 대만과 대륙 본토의 언어습관이 번역에 차별적으로 반영된 사례를 보여준다. 이 밖에 간체와 번체자막 비교에서 필자가 찾아낸 어휘들을 몇 개 더 열거해 보면, “택시”<sup>5)</sup>는 “出租車(TT1)”와 “計程車(TT2)”, “버스”<sup>6)</sup>는 “公共車(TT1)”, “公車(TT2)”, “첫 번째”<sup>7)</sup>는 “第一項(TT1)”, “第一站(TT2)”로 각각 번역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오징어 게임』 시즌 1에서 간체자막에 대만 어휘의 혼용이 많이 발견된 것과는 달리 시즌2에서는 간체와 번체 자막이 확연히 구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자막은 서로 참고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 2) 한자어(漢字語)

4) 教育部臺灣台語常用詞辭典 온라인 검색결과를 참조함.

5) 1화 34:48

6) 5화 29:05

7) 4화 42:26

한중(혹은 중한) 번역에서 번역가들이 가장 쉽고 많이 하는 실수는 바로 한 자어를 그대로 옮겨와 어색한 문장을 만드는 경우다. 다행히 『오징어 게임』 시즌 2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어색한 번역은 거의 사라졌다. 오히려 한자어라는 공통 분모 덕분에 번역이 훨씬 더 수월해진 부분도 눈에 띈다. 아래의 예시 5, 6, 7은 생사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은 이들이 다음 게임을 위해 팀을 구성하며 서로를 소개하는 장면이다. 이 사례들은 한자로 인해 한중 번역의 효과가 극대화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예시5> 5화 24:35

ST: 먼저 저는 강대호입니다. 큰 “대”자에 호랑이 “호”자

TT1: 我先來 我叫姜大虎 “大小”的“大” “老虎”的“虎”

TT2: 我先來, 我叫姜大虎 “巨大”的“大”, “老虎”的“虎”

<예시6> 5화 24:43

ST: 나는 박정배라고 합니다. 바를 “정”에 곱질 “배”

뒤, “두 배로 바르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TT1: 我叫朴正倍. “正直”的“正” “倍数”的“倍”

父母是希望我“加倍正直地活着”

TT2: 我叫朴正倍. “正義加倍”

爸媽期許我有兩倍的正義感

<예시7> 5화 24:51

ST: 저는 김준희요. 한자는 잘 몰라요

TT1: 我叫金純熙. 我不知道汉字对应什么字

TT2: 我叫金純熙. 不確定有什麼含義

TT3: 我叫金俊熙 我不知道名字有什么含义

<예시7>의 TT1과 TT2는 모두 “김준희”를 “김순희”로 오역했다. 드라마 시청에는 큰 지장이 없으나, 향후 배역 검색이나 기타 정보 활용 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김순희”를 “김준희”로 수정하여 원문과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더욱이, 극 중 인물이 “한자는 잘 모른다”고 언급했음에도

자막에 버젓이 “김순희(金純熙)”라는 한자가 등장하여 논리적 모순을 야기한다. 여기서 “한자는 잘 몰라요”의 본래 속뜻은 이름에 쓰인 한자의 구체적인 뜻을 모른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TT1 역시 TT2처럼 단순히 한자의 표기 여부를 넘어, 한자는 알지만 그 의미를 모른다고 번역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수정 번역인 TT3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자 이름과 논리적 순서를 바로잡은 번역을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게임 팀원들 소개에서는 속칭 “아재 개그”라고 하는 말장난을 통해 듣는 사람을 어이없게 만들거나 피식 웃게 하는 부류의 유머가 등장한다. 중국어에서 이러한 형식의 언어유희에 가장 가까운 것은 해음(諧音)현상이다.

<예시8> 5화 25:05

ST: 전 오영일입니다.....번호도 1번, 이름도 영일

TT1: 我叫吳零一.....我编号是零一 名字也叫零一

TT2: 我叫吳寧一.....聽起來像零一, 剛好是我的號碼

TT1은 모두 동일한 한자로 번역했지만, TT2는 발음이 유사한 다른 한자를 사용했다. 해음은 발음의 유사성으로 인해 다른 의미가 연상되는 현상이므로, 유머를 발생시키려면 TT2처럼 다른 한자를 사용한 번역이 해음 원리에 더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예시9> 5화 25:20

ST: 아, 저는 성기훈이라고 합니다

아, 성기훈, 성기훈, 성기훈, 성이 성이네요?

TT1: 我叫成奇勛

啊 成奇勛, 成奇勛, 姓也是“成功”呢

TT2: 奇勳, 你姓什麼?

我叫成奇勳, 原來如此, 成奇勳, “成氏”, “程式”

<예시9>의 두 번째 농담은 중국어로 번역하기 어렵다. 한국 한자 ‘성(成)’과 ‘성(姓)’은 발음이 같지만, 중국어에서는 ‘成(chéng)’과 ‘姓(xìng)’이 해음 현

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TT2는 언어유희를 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의미도 통하지 않아 오역에 가깝다. 반면, TT1은 기훈이 게임에서 계속 성공하여 살아남았다는 점을 그의 성씨와 연결하여 유머를 만들었다. TT1을 한국어로 다시 옮겨보면 “아, 성기훈, 성기훈, 성도 ‘성공’의 ‘성’이네요?” 정도가 되는데, 이는 의미와 유머를 모두 살린 좋은 번역이라고 볼 수 있다.

### 3) 문화소1 - 욕, 은어, 속어

『오징어 게임』 시즌 1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비속어(욕설)의 과도한 순화 번역이었다. 실제로 영어 자막 시청자들은 이러한 순화 때문에 등장인물들의 생동감 있는 캐릭터와 말맛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문제는 시즌 1의 중국어 자막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시즌 2의 상황은 어떠할까? 중국어 자막만을 분석했을 때, 시즌 2 역시 시즌 1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시즌 2의 비속어들 또한 대체로 순화된 형태로 번역되어 있다.

<예시10> 1화 09:15

ST: 아, 병신

TT1: 怎么了? 废物

TT2: 說什麼啦? 你真的很混蛋

TT3: 傻逼吧你?

한국어 욕설 “병신”은 상대를 심하게 비하하거나 모욕할 때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TT1은 이를 “쓸모없는 녀석” 정도의 어감을 갖는 “废物(fèiwù)”로 순화 번역했는데, 이는 원문의 감정 강도나 사회적 금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어휘 선택이다. 반면, TT3에 제시된 “傻逼(shǎbī)”는 중국어 욕설 중에서도 비교적 강도가 높은 표현으로, 한국어 “병신”이 내포한 조롱과 모욕적인 뉘앙스를 보다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에 TT3에서

는 “废物”를 “傻逼”로 교체하여 원문의 강한 어감을 살리는 번역을 시도하였다.

<예시11> 7화 01:21

ST: 좆밥 같은 새끼야! 이 씨발 놈아

TT1: 去死吧 王八蛋 你个废物! 王八蛋!

TT2: 混帳東西, 去死吧

TT3: 去死吧 王八蛋 你个傻逼! 王八蛋!

<예시11>은 “좆밥”, “새끼”, “씨발”, “놈” 등 모욕적 언어를 연속적으로 쏟아내며 인물 간의 극단적인 적대감과 위계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간체 자막(TT1)과 번체 자막(TT2)은 “王八蛋”, “废物”, “混帳東西”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욕설의 강도와 분노의 정서를 어느 정도 유지했다. TT3에서는 <예시 10>의 수정 원칙과 같이 “废物”를 “傻逼”로 교체함으로써, 원문 대사가 가진 거친 말맛을 더욱 강조하였다.

<예시12> 1화 13:41

ST: 한 푼도 못 건지고, 씨발

TT1: 本金和利息一分都沒拿回來 媽的

TT2: 我從來沒討回一毛...

“한 푼도 못 건지고, 씨발”은 극 중 인물의 분노와 좌절을 날것 그대로 드러내는 대사이다. 여기서 “씨발”은 분노·절망 등의 감정을 극대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간체 자막(TT1)에서는 “媽的”로 직역되어 원문의 감정 어조를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였으나, 번체 자막(TT2)은 해당 욕설을 생략하고 있다. 이는 감정 전달력보다 수용 언어 문화권의 수위 조절을 우선시한 순화 전략의 일례로, 의미 전달에는 성공했으나 인물 감정의 생생함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시13> 3화 00:55

ST: 그 새끼들 잡기만 해 봐, 어? 내가 이 전기로 그냥 확 지져 버릴 테  
 니까, 씨  
 TT1: 等我抓住那些混蛋 我非用電直接电死他們  
 TT2: 等我逮到那些混蛋, 一定要電死他們  
 TT3: 等我他妈抓住那些混蛋 我非直接電死他們 操

원문의 “그 새끼들 잡기만 해 봐”, “전기로 그냥 확 지져 버릴 테니까, 씨”는 연속적인 위협, 강한 분노, 그리고 비속어가 결합된 감정 표현이다. 여기서 “씨”는 독립성분으로 사용된 일종의 감탄사이다. 기존 자막(TT1, TT2)은 위협적인 욕설을 “混蛋”, “电死”등의 수준에서 전달했으나, 욕설 감탄사인 “씨”에 해당하는 부분은 누락되거나 순화된 형태로 처리되었다.

TT3 수정번역에서는 “他妈”, “操”와 같은 중국어 욕설을 추가하여 원문의 감정 강도와 욕설의 직접성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했다. 특히 중국어 “操”는 감탄사처럼 사용되어 격한 감정을 강조하는 기능을 하므로, 한국어의 “씨”와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다.

<예시14> 1화 05:10

ST: **잡새** 야, 너 그 **잡새 새끼**랑 경찰차 타고 와!  
 TT1: 你可以讓那个**死条子**用他的警車送你!  
 TT2: 你叫那個**臭條子**開警車載你吧

<예시14>는 경찰을 경멸적으로 지칭하는 속어 “잡새”와 “새끼”를 반복 사용하여 강한 혐오와 적대감을 드러낸 표현이다. 중국어에도 이 단어와 정확히 기능적 등가(Functional Equivalence)를 이루는 단어 “条子(tiáozi)”가 있다. TT1, TT2 모두 이 단어 앞에 강도를 더하는 “死”와 “臭”를 덧붙여 원문의 “새끼”가 갖는 경멸의 강조까지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예시15> 5화 22:17

ST: 빨갱이년, 씨  
 TT1: 你這個**共产娘们儿**, 媽的

TT2: 媽的, 死共匪

“빨갱이년”은 여성에 대한 성적 모욕(년)과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하(빨갱이)가 결합된 복합적 욕설이다. 여기서 “빨갱이”는 한국 사회에서 좌익 또는 공산주의자를 비하하는 용어로, 해당 대사는 극 중 인물의 정치적 혐오와 여성 혐오가 동시에 드러나는 사례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공산당원”이란 말 자체는 비하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간체 자막(TT1)은 여성을 비하하는 “娘们儿(Niángmenr)”을 붙여 원문의 욕설을 표현했다. 번체 자막(TT2)은 한국어의 “빨갱이”와 기능적 등가를 이루는 “공비(共匪)”를 사용하여 번역했다. TT1은 여성 혐오를, TT2는 공산당 혐오에 각각 초점을 맞추었으나, 큰 틀에서 원문 대사의 의도를 충분히 살린 번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징어 게임』 시즌 2에는 클럽 종업원 출신 “남규”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코인 투자 실패로 게임에 참여한 그는 극 중 가장 지독하고 야비한 악역으로 그려진다. 남규는 거의 모든 대사에서 “씨발”, “ 좆”, “새끼”와 같은 비속어를 입에 달고 다닌다. 하지만 실제 번역자막에서는 이러한 비속어들이 일부만 반영되어 있어 남규라는 인물의 저속함을 일관되게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의 말투나 사용되는 어휘는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이나 사회 계층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비속어나 유행어의 사용 빈도 역시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중국어에도 한국어만큼이나 다양한 비속어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어 대사에 포함된 비속어는 “할 수 있는가”라는 번역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해도 되는가”라는 번역 윤리 및 허용 범위에 대한 문제로 보아야 한다. 비록 『오징어 게임』이 19세 이상 성인 시청 콘텐츠일지라도, 국가별로 비속어에 대한 문화적·제도적 허용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한중번역에서 비속어 번역 전략은 원작의 의도를 살리되, 중국(혹은 대만)의 문화적 허용 범위와 제도적 심의 기준을 준수하며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표현하는 “윤리적 현지화”가 매우 중요하다.

#### 4) 문화소2 - 속담, 격언, 관용구

속담, 격언, 관용구는 번역학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문화소들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특정 문화권에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역사, 사회, 풍습, 가치관, 생활양식 등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속담, 격언, 관용어는 해당 문화권의 사고방식과 정서가 농축된 표현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번역하는 것은 때로는 번역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중국은 오랜역사 만큼이나 다양한 속담, 격언, 관용적 표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어휘들활용하면 매우 효과적인 번역을 완성할 수 있다.

<예시16> 4화 52:33

ST: 민수야,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랬어? 살고자하면 돼지고 돼지려고 하면 산다고

TT1: 敏修, 李舜臣将军那句名言是什么? “必死则生, 必生则死”

TT2: 敏秀, 李舜臣将军说过什么? “幸生则死 必死则生”

TT3: 敏修, 李舜臣将军不是说了吗? “置之死地而后生”

이순신 장군의 명언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을 한다면 오히려 살길이 열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TT1과 TT2는 이 명언을 원문에 충실하게 직역하였다. “이순신”이란 한국의 역사인물을 모른다하더라도 “장군”이라 단어로 인해 명언이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예시 16>의 TT3은 잘못을 수정한 번역이 아닌 도착어(중국어)의 문화소를 활용한 번역이다. 《손자병법(孫子兵法)》에 나오는 “置之死地而后生”는 구절은 이순신 장군의 명언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도 중국 문화권에서 널리 쓰이는 명구이다. 이순신 장군의 명언과 이 병법서의 명구는 등가로 번역이 가능하다.

<예시17> 5화 21:32

ST: 남남북녀라잖아

TT1: 所以都说“韩男朝女”嘛

TT2: 北韓的女生都很正

TT3: 老話說, 朝鮮出美女

“남남북녀(南男北女)”라는 속담은 말 그대로 “남쪽에는 잘난 남자(南男)가 많고, 북쪽에는 예쁜 여자(北女)가 많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속담은 극 중에서 미모의 탈북 여성(전직 북한군 장교)으로 등장하는 인물(박규영)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 이 속담에 대한 중국어자막 번역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TT1은 “한국 남자, 북한 여자”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속담의 함축적인 의미를 전혀 살리지 못한 어색한 직역이다. TT2는 “북한 여자는 매우 예쁘다”라고 속담의 주된 내용을 풀어 번역하여 의미 전달에는 성공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에서도 예부터 북한 여성들이 아름답다는 속설이 전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TT3에서는 “예부터 ~라고 했다”와 같이 속담의 뉘앙스까지 살린 수정번역을 제시했다.

<예시18> 1화 06:44

ST: 위에서 네 옷 벗기라고 난리 치는 걸 내가 겨우 막았어

TT1: 上面准备解雇你了, 我費了很大周章才給拦下来

TT2: 他們本來要開除你了, 是我死命擋下來的

TT3: 上面准备炒掉你了, 我好不容易才給拦下来

한국어에서 “옷을 벗다”는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직책에서 물러나는 것을, “옷을 벗기다”는 해고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관용 표현이다. 여기서 ‘옷’은 직책이나 역할을 상징한다. 제시된 번역문 TT1과 TT2는 이러한 원문의 상징적 의미를 지우고 단순히 “해고”라는 의미만을 전달했다. 하지만 중국어에도 한국어의 “옷을 벗다”와 기능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뉘앙스를 가진 “炒掉(chǎodiào, 직위를 박탈하다)”라는 표현이 존재한다. TT3에서 이러한 출발어의 기능과 상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한 등가 번역을 제시했다.

<예시19> 6화 01:51

ST: 네 **명줄**이 타고난 것보다 더 **긴** 이유가 있었구나

TT1: 你**比注定的寿命活得更长**, 原来是有原因的

TT2: 看來你**逃過死劫**是有原因的

TT3: 看來你**命硬不是沒理由的**

“명줄이 길다”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끈질기게 살아남다” 또는 “액운을 피해 살아남아 운이 좋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시된 번역문 TT1은 이 표현을 단순히 “정해진 수명보다 더 오래 살아남다”라고 맛있게 의역했고, TT2는 “죽음을 면하다” 정도로 번역하여 원문의 미묘한 뉘앙스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어에도 “명줄이 길다”와 일대일로 상응하는 속어 표현 “命硬 (mingying)”이란 말이 존재한다. 이 단어는 여러 번의 위험한 상황이나 생사를 오가는 위기를 겪고도 살아남는 사람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한다. TT1은 말투 자체가 너무 평범한 설명조여서 극적인 느낌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TT3에서는 속어 “命硬”과 이중부정을 통해 수명이 길다는 놀라움을 강조함으로써 캐릭터의 말투와 감정 흐름까지 고려한 번역을 제시했다.

<예시20> 5화 21:50

ST: 너 **끈 떨어졌어**

TT1: 你的**铁饭碗丢了**

TT2: 他早就**抛弃**你了

TT3: 你的**靠山倒了**

한국어에서 “끈”은 인맥이나 배경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따라서 관용구 “끈 떨어지다”는 권력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더 이상 도움을 받거나 기댈 곳이 없어진 상황을 의미한다. 이 관용구에 대한 번역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였다. TT1은 이를 “너의 철밥통이 깨졌어”라고 번역했다. 이 표현은 주로 안정적인 직장을 잃었을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이다. 현재 위

치가 위험해졌다는 결과는 같지만, 원문이 강조하는 배경(“끈”)이라는 비유적 의미와 관계의 상실이라는 원인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반면, TT2는 관용구의 비유를 포기하고 의미만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중국어에도 한국어의 “끈 떨어지다”와 기능적으로 동일한 비유적 표현이 존재한다. 바로 “靠山(kàoshān)”이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산에 기대다”라는 의미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후원자”, “보호자”, 혹은 “배경”이란 의미로 파생되었다. TT3에서 한국어 관용구에 일대일로 대응할 수 있는 이 중국어 관용구를 사용하여 “너의 뒤 배경이 무너졌다”라는 의미로 수정하였다.

<예시21> 4화 03:44

ST: 와, 멋모르고 우산 뽑은 놈들은 완전 **꼴로 갔겠네요**

TT1: 哇, 不知天高地厚选了雨伞的人不是等于直接**见阎王**了吗? 是吧?

TT2: 有人选雨伞啊? 选雨伞的**倒楣鬼**应该都**掛**了吧?

“꼴로 가다”는 주로 사망이나 심각한 실패와 같은 부정적인 상황이나 결과를 뜻하는 비속어다. 여기서 “꼴<sup>8)</sup>”은 관, 골짜기나 무덤을 의미한다. 죽음을 표현하는 말은 별세, 서거, 영면, 타계, 작고, 운명과 같은 엄숙한 한자어부터 ‘웨지다’와 같은 비속어까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 중에서 “꼴로 가다”라는 표현은 극 중에서 게임의 선택 결과가 치명적이었음을 풍자적인 어조로 전달하며, 가벼운 농담 속에 공포감을 내포하고 있다. TT1에서는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 “염라대왕을 만나다(见阎王)”와 같은 비유적이면서 속된 어감의 표현을 사용했다. TT2에서는 “재수 없는 놈(倒楣鬼)”과 “웨지다(掛[guà]<sup>9)</sup>)”를 활용하여 원문의 뉘앙스를 모두 잘 살렸다. 두 번역 모두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원문의 의미와 효과를 도착어에서 유사하게 전달하는 기능적 등가의 원리에 따라 잘 번역된 사례로 판단된다.

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온라인) “꼴로 가다” 검색결과를 참고함.

9) 屬於口語, 俚語表達, 語氣直接, 不如『去世』禮貌. 대만의 오픈 사전 《萌典》을 참고함.

<예시22> 6화 39:34

ST: 이제 **이판사판**입니다

TT1: 現在只能**豁**出去了

TT2: 只能**放手一搏**了

“이판사판(理判事判)”은 조선시대 불교문화에서 유래<sup>10)</sup>한 단어이다. 원래 이판은 경전 연구와 수행에 전념하는 승려를, 사판은 절의 살림과 행정을 담당하는 승려를 의미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승유억불 정책으로 승려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아지면서, 승려가 된다는 것은 결국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의미, 즉 “막다른 길에 도달한 상황”을 뜻하게 되었다고 한다.

TT1의 번역인 “이제는 그냥 될 대로 되라지”와 TT2의 번역인 “이제는 그냥 한번 해 볼 수밖에 없다”는 모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막다른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모든 것을 걸고 시도하는 절박함과 무모한 결의를 나타낸다. TT1, TT2 번역 모두 “이판사판”과 기능적 등가를 이루는 관용어로 번역되어 있다.

예시 16부터 22까지는 한국의 관용어와 일대일로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있어서 기능적 등가가 성립하는 경우였다면 예시 23, 24는 적합한 관용적 표현이 없어 풀어 설명하는 번역전략을 취한 경우이다.

<예시23> 4화 01:42

ST: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잖아

TT1: 饱死鬼总比饿死鬼好看

TT2: 吃饱了才有體力

이 속담과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마땅하지 않다. TT1은 표면적 의미에 초점을, TT2는 내재된 의미를 각각 번역하였다.

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온라인)의 “이판승(理判僧)” 검색결과를 참조함.

<예시24> 4화 07:53

ST: **홀아비 사정 과부가 안다**고 오죽하면 다들 저러고 있겠어

TT1: 俗话说得好, 寡妇最了解鳏夫

TT2: 寡婦最了解鳏夫的境遇, 不然大家怎么会这样说呢?

“홀아비 사정 과부가 안다”는 속담의 핵심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만이 그 고통과 사정을 가장 잘 이해한다”는 것이다. 중국어에는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성어로 “동병상련(同病相怜)”이나 “同是天涯沦落人<sup>11)</sup>”같은 표현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두 표현 모두 문어적 표현이어서 드라마 대사로 사용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TT1과 TT2 모두 중국 속담을 사용하기보다는 원문을 직역에 가깝게 풀어낸 해설적 번역, 즉 속담의 기능적 등가 대신 의미 전달을 우선시한 번역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 5) 문화소3 - 기타 어휘들

문화소 번역은 단순히 단어나 문장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을 넘어, 특정 문화에 내재된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는 번역을 의미한다. 즉, 언어적 번역뿐만 아니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번역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번역전략이 필요하다.

<예시25> 5화 27:57

ST: 김치찌개 끓여 먹자, 응? **묵은지** 꺼내서

TT1: 我们把家里**久腌的辛奇**拿出来煮辛奇汤吃 嗯?

TT2: 我们来吃**陈年辛奇**锅

TT3: 我们来吃**陈年泡菜**锅

11) 당나라 백거이(白居易)의 유명한 시에서 나온 구절이다. “同是天涯沦落人, 相逢何必曾相识”, 해석하면 “모두가 머나먼 곳에서 몰락하여 떠도는 신세인데, 서로 만났음에 어찌 예전에 알았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란 뜻으로 주로 앞의 구절을 따서 쓴다.

묵은지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오랫동안 숙성되어 푹 익은 김장김치”이다. “오랫동안”의 기준은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최소 6개월 이상 저장해 놓은 김치를 묵은지라고 말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인 김치 그중에서도 묵은지에 대응하는 중국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간체, 번체 모두 “오래 숙성시킨”이란 표현으로 풀어서 번역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TT1, TT2에서 발견되는 문제는 김치의 중국어 “신치(辛奇)”이다. 최근 격해지는 한중간 역사와 문화의 기원 문제로 인해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치의 중국어를 “신치”란 신조어로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거나 낯설어한다는 점이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수용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신치”보다는 TT3처럼 대부분의 중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파오차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예시26> 6화 42:14

ST: 너 어차피 전세사기 당해서

TT1: 反正你也被全租房骗了

TT2: 反正你被租屋詐騙搞得無處可去了

전세(傳貰)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주택임대차 방식이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전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공짜로 거주할 수 있는 특이한 제도라고 착각하기도 할 만큼 생소한 시스템이다. 드라마 맥락상 “전세”의 의미보다는 부동산 사기에 의미 비중이 더 크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소는 구체적 설명보다는 상위(Hypernymy) 개념으로 대체하는 전략이 무난하다. TT1, TT2 모두 무난한 “부동산 사기” 정도로 적절히 번역하였다.

<예시27> 5화 03:42

ST: 아버지가 그때 바람피운 여자 머리끄덩이라고 생각해

TT1: 想象成爸爸当年出轨的小三的脸

TT2: 把這些石子想成爸爸的情婦

TT3: 想象成爸爸当年出轨的小三

원문 대사는 여성들이 몸싸움을 할 때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놓지 않는 행위를 빗대어 공기돌을 놓치지 말고 “꼭 움켜잡으라”는 맥락에서 나왔다. TT1은 여기서 움켜잡는 대상을 아버지와 바람 핀 여자의 “얼굴”로 번역했는데, 이 번역은 다소 어색하다. 얼굴은 실제로 움켜쥐거나 잡아당기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어 표현 중에 “불륜 상대를 잡다”란 “抓小三(zhuā xiǎosān)”이란 속어가 있다. 이 속어에도 “잡다(抓)”란 의미가 들어가 있다. 따라서 “小三(불륜녀)”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잡다(抓)”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연상되기 때문에 TT1에서 “얼굴”과 같은 군더더기 단어를 덧붙이는 것은 불필요하다.

<예시28> 5화 23:50

ST: 김병현 보는 줄

TT1: 我以为是国际棒球选手金炳贤呢

TT2: 简直就是金炳贤

TT3: 我以为是神枪手呢

이 대사는 비석치기 게임에서 단번에 던지기에 성공한 팀원을 칭찬하는 장면에서 나온다. 이때 언급되는 “김병현”은 메이저 리그에서 활약한 한국의 유명 야구선수이지만, 외국 시청자에게는 생소한 이름일 수 있다. TT1은 김병현이라는 이름 앞에 “국제 야구선수”라는 수식어를 붙여 시청자의 혼란을 줄이려 했으나, 설명조의 부자연스러운 자막이 되고 말았다. TT2는 별다른 설명을 추가하지 않아 시청자에게 불친절한 직역이 되었다. TT3에서는 문화소인 고유명사 김병현을 생략하고 명중률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접근했다. “명사수(神枪手[shénqiāngshǒu])”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나는 백발백중의 명사수인 줄”처럼 감탄과 칭찬의 의미만을 살림으로써, 캐릭터의 말맛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게 수정하였다.

## 6) 오역과 어색한 번역

『오징어 게임』은 시즌 1과 시즌 2 모두 오역은 많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분석할 사례들 역시 시청에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예시29> 1화 06:01

ST: 아니까 그 짜장면이나 드세요. 다 불어요

TT1: 我知道, 吃面吧, 要泡烂了

TT2: 是我知道, 快吃您的炸酱面吧, 一会儿都沒有嚼勁了

TT3: 是我知道, 您快吃炸酱面吧, 一会都坨了

TT1과 TT2는 모두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 “불었다”고 번역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위와 동일한 상황이라면 “불었다(泡烂了)”라는 표현보다는, “한 덩어리로 굳어 버렸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일반적이다. 따라서 TT1과 TT2는 모두 다소 어색한 직역에 가깝다. TT3에서 “덩어리지다(坨了)”라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수정번역을 제시했다.

<예시30> 1화 06:33

ST: 총기까지 무단반출해서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TT1: 再加上你小子那么武断拿着枪就一个人行动去了

TT2: 你这臭小子未經許可帶槍單獨行動

TT3: 再加上你小子擅自拿着枪一个人跑去行动

TT1에서 원문의 “무단(無斷)”을 발음이 같은 “무단(武斷)”으로 착각한 오역이다. “무단(無斷)”은 “허락 없이, 제멋대로”라는 뜻이고, “무단(武斷)”은 “독선적이다, 제멋대로 판단한다”는 의미로, 두 단어는 뜻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TT2에서처럼 “허가를 거치지 않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 TT3에서 “무단(無斷)”을 뜻하는 단어 “擅自(shànzi)”로 교체하여 오역을 수정했다.

<예시31> 1화 24:42

ST: 있지도 않는 놈 찾겠다고 수역을 뿌려가면서 이렇게까지 하겠나 싶다

TT1: 但他绝对不会浪费几十亿找一个不存在的

TT2: 也不會爲了找一个根本不存在的家伙浪费几十亿做到這種地步

TT3: 也不会为了找一个根本不存在的家伙浪费好几亿做到这种地步

간체, 번체 번역 모두 “수역”을 “수십억”으로 오역했다. 구체적인 화폐단위가 표기되지 않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중국어 번역본에서는 “많은 돈”을 의미하는 관습적 표현 “수십억”을 선택해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를 이해하는 데 큰 문제는 없으나 엄격히 이야기하자면 오역이다. 극중 게임에서 우승한 사람의 최고 상금이 한화 456억원이다. 중국 위안화 수십억에서 가장 적은 액수 10억 위안만을 환산해도 한화 1,900억 원이 넘어간다. TT3 수정번역에서 이러한 사소한 오류를 바로잡고 발화자의 입장에서 많은 돈을 강조하는 “몇 억이씩이나(好几亿)되는” 정도의 표현을 제시하였다.

<예시32> 1화 56:57

ST: 생각이 많아지셨나요?

TT1: 在想事情吗?

TT2: 現在想法變多了嗎?

TT3: 现在开始担心了?

위 대사는 러시아룰렛 게임을 하면서 1/2의 확률로 죽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딱지남(공유)이 기훈(이정재)에게 하는 말이다. TT1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라는 의미로 번역했으며, TT2는 “생각이 많아졌나”라고 직역했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생각이 많아졌다”는 표현은 걱정이나 근심과는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랐다는 뜻으로 쓰인다. 따라서 TT1과 TT2 모두 오역에 가깝다. 이에 TT3에서는 “이제는 걱정되기 시작하나?” 정도의 표현으로 오역을 바로잡았다.

<예시33> 1화 05:26

ST: 너 인마, 째새 소리나 들으려고 여기로 보내 달라고 했냐?

TT1: 你这臭小子调来这里是为了听别人叫你“蠢猪”的吗?

TT2: 你是爲了被罵“臭條子”才調過來的嗎?

TT3: 你这臭小子是为了被叫“臭条子”才让我把你调过来的吗?

TT1과 TT2는 모두 ‘전근시키다’ 또는 ‘사람을 배치하다’라는 뜻을 가진 ‘调来(diàolái)’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번역하였다. 극 중 황준호 형사(위하준)는 상사인 김반장에게 부탁하여 해당 장소로 전근을 왔다. 다시 말해, 황형사는 전근을 당한 사람이고 전근을 보낸 사람은 김반장이다. 하지만 TT1과 TT2는 모두 황 형사가 주체적으로 이곳으로 전근해 온 것으로 번역했다. 전근의 주체가 황 형사가 되면 김반장이 화를 내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김반장이 화를 내는 이유는 자신이 전근을 보낸 후배가 근무지에서 형편 없는 현실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안쓰럽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TT3에서 전근의 주체와 객체를 명확히 구분한 피동형 문장을 수정번역으로 제시했다.

<예시34> 3화 26:10

ST: 입 가리고 말해야 해, 위험해

TT1: 要闭嘴说话 危险

TT2: 嘴巴遮起来, 這樣很危險

TT3: 要捂着嘴说话, 不然很危險

위 대사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중, 기훈(이정재)이 동작감지센서를 조심해야 한다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경고하는 장면에서 나온다. TT2는 문제없이 잘 번역되었다. TT1은 “입 닫고 말해야 해”라고 번역했는데, 상식적으로 입을 닫은 상태에서는 말을 할 수 없다. 동작 센서가 입술의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기에, “입을 가린 채로 말해야 한다”가 정확한 의미다. TT3에서 “가린 채로(捂着)”라는 표현으로 교체하여 TT1의 오역을 바로잡았다.

<예시35> 2화 29:14

ST: 클럽은 저랑 성 사장님 둘만 들어가고

TT1: 我跟成社长两个人去**俱乐部**就好

TT2: 只有我們兩個會進**夜店**

TT3: 我跟成社长两个人去**夜店**就好

영단어 클럽(club)에 해당하는 중국어는 “구락부(俱樂部)”다. 한국어에서 “클럽”은 문맥에 따라 동호회, 사교 모임, 또는 댄스클럽(나이트클럽) 등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중국어 “구락부”는 주로 체육, 학술, 취미 등 공식적인 목적을 가진 모임 공간을 지칭하며, 유흥이나 향락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서 말하는 “클럽”은 춤과 술을 즐기는 유흥 장소로서의 “클럽”을 의미한다. 이에 대응하는 정확한 중국어 단어는 “夜店(yèdiàn)”이다. “夜店”은 야간에 운영되는 술집이나 댄스 플로어(dance floor)가 있는 클럽을 뜻하며 유흥 장소로서의 “클럽” 의미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단어다. 따라서 TT1의 “俱樂部”는 TT2처럼 “夜店”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예시36> 3화 00:43

ST: 이거 성사장이 계획한 플랜B대로 **되고 있는 거네**

TT1: 按照成社长制定的备用计划行动

TT2: 事情往成社長的B計畫發展了

TT3: **没想到**事情真的往成社长的备用计划发展了

TT2는 원문을 충실히 번역했지만, TT1에는 작은 오역이 있다. TT1 “성사장이 만든 플랜B대로 행동하자”라고 번역은 문맥상 맞지 않다. 해당 대사는 성 사장이 말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음에 감탄하는 대사이기 때문이다. TT3에서는 “没想到(생각지도 못했다)”를 추가하여 이러한 감탄의 뉘앙스를 살리고, 관찰자의 시선에서 일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도록 수정하였다.

<예시37> 5화 28:59

ST: 전 광명이요

TT1: 我往光明洞

TT2: 我往光明市

TT3: 我往光明市

위 대사는 팀원들이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소개하는 장면이다. 현주는 자기가 사는 곳이 광명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보통 도시 이름 뒤에 붙는 행정단위는 생략하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란 ‘광명’이라고 말해도 모두 ‘광명시’로 이해하지만, 한자로 직접 바뀌어 번역될 수 있는 한국의 도시 이름은 중화권 사람들에서 조금은 생소할 수 있다. 상당수의 중국사람들 “동(洞)”이라는 명칭의 행정단위가 매우 한국적인 특색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간체 번역자는 “광명동(光明洞)”이라고 번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간체 번역자가 한국지리나 행정에 대한 섬세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드러내는 오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TT2 번째 자막 “광명시”가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시38> 7화 07:16

ST: 그래도 좀 자야지 / 새벽부터 일 시작하잖아

TT1: 那也应该稍微睡一会儿 / 清晨又要开始新的一天了

TT2: 明天還要早起, 多少睡一點, 不然你會累壞的

TT3: 那也应该稍微睡一会儿 / 凌晨又要繼續忙了

TT2는 원문의 두 문장을 자연스러운 중국어로 의역했지만, TT1에서는 한 가지 오역이 눈에 띈다. “새벽부터 일 시작하잖아”에서 “일”을 작업이나 노동의 의미가 아닌 “하루” 즉, 날 “일(日)”로 오해해 “새벽에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한다”고 번역했다. TT3에서 이 오역을 “새벽부터 다시 바빠질 거야”라는 좀 더 자연스러운 중국어 표현으로 대체했다.

<예시39> 7화 50:07

ST: 참가자 여러분, 지금은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TT1: 各位**玩家**, 睡觉时间到了

TT2: 各位**參加者**, 現在是就寢時間

TT3: 各位**参赛者**, 現在是就寢時間

『오징어 게임』에서는 게임 진행과 참가자들의 단체생활 안내 시, 무미건조한 아나운서의 방송이 계속해서 나온다. 사람이 죽고 사는 극한 상황에서도 이 방송 멘트는 마치 올림픽과 같은 국제경기처럼 언제나 차분하고 공식적인 아나운서의 말투로 일관되게 유지된다. 이러한 아나운서의 대사는 비극적인 게임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을 단순히 경기의 말로 보는 대회의 무자비함을 보여주는 극적 수단이기도 하다.

번체자막 TT2에서는 이 부분을 “참가자(參加者)”로 번역하여 국제 행사의 공식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원문의 공식성과 장면의 분위기를 잘 살렸다. 반면, 간체자막 TT1에서는 “玩家(플레이어)”라는 단어로 의역하였다. 이 단어는 주로 온라인 게임처럼 재미를 추구하는 게임의 참여자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 의미가 다소 가볍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경쟁과 승패가 있는 엄숙한 대회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玩家”보다는 “参赛者(cānsàizhě)”로 수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 7) 화제의 번역

드라마가 공개되고 폭발적 인기와 더불어 몇몇 대사들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마약을 하는 래퍼(rapper)로 등장했던 타노스(최승현)는 3화에서 젊은 여성 참가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아래와 같은 랩을 한다.

<예시40> 3화 20:21

ST: 수많은 이들 속 찾았네, **바로(바뤼)**

잡초들 사이 활짝 핀 내 뷰티**플라워**

빨, 주, 노, 초  
 암어 레전드 타노스  
 푸르덴탱, 녹색 빛깔  
 내게 밝혀줘, 그런 라이트  
 아이 라이크 유

드라마 속에서 배우 최승현은 “빅뱅”이라는 유명 아이돌그룹 출신 래퍼답게 과장된 동작과 더불어 독특한 운율로 위 대사를 소화한다. 랩의 핵심은 라임(rhyme)을 통한 리듬감이다. 위 대사에서 실제로는 “바꿔”로 발음되는 “바로”와 “플라워”의 “워” 그리고 “라이트”와 “라이크”가 라임을 형성하고 있다.

<영어번역>

You and me together  
 Yeah, I feel the power  
Found her hidden in the weeds  
 Yeah, my beauty-flower  
 Red, orange, yellow, green  
 I'm a legend, Thanos  
 Sweet-ass tracksuit, lookin' tight  
 Hope I get the green light  
 I like you!

랩의 본고장답게 영어 번역에서는 밀줄 친 바와 같이 라임이 살아있게 번역되어 있음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 대조를 위해 살펴본 일본어와 프랑스어 그리고 독일어 번역에서는 이러한 라임을 찾아볼 수 없었다.

TT1: 人山人海 你立刻吸引了我的眼球  
 一片杂草中盛开的 我的美丽花朵  
 红、橙、黄、绿 我是传奇萨诺斯  
 看看我们这蓝绿色衣服  
 拜托给我开绿灯  
 我喜欢你

TT2: 我在茫茫人海找到了你  
 雜草間的美麗花朵紅橙黃綠,  
 我是名為薩諾斯的傳奇  
 穿著綠色制服  
 愛情的綠燈, 為我亮起  
 我喜歡你

TT1의 간체 번역에서는 라임을 찾아볼 수 없지만, TT2의 번체 번역에서는 “你, 奇, 起”와 같은 글자들을 활용하여 명확하게 라임을 살려 번역했음을 알 수 있다. 확실히 맛있는 TT1과 차별화되는 번역으로, 주인공의 캐릭터를 잘 살린 훌륭한 번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 동요 “둥글게 둥글게”는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성공과 더불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5화 죽음의 짝짓기 게임에 등장하는 이 곡은 반복적인 리듬의 강한 중독성 덕분에 각종 SNS와 숏폼(Short-form) 콘텐츠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예시41> 5화 01:09:21

ST: 둥글게 둥글게.....중략 ...  
랄랄랄라 즐거웁게 춤추자  
링가링가링가 링가링가링  
링가링가링가 링가링가링

TT1: 转圈圈 转圈圈...  
啦啦啦啦 开心地跳舞  
叮铃铃铃  
叮铃铃铃

TT2: 繞圈圈...  
啦啦啦, 大家一起開心地跳舞  
轉啊轉啊轉...  
轉啊轉啊轉...

이 동요에서는 “랄랄랄라”와 “링가링가”라는 의성어가 등장한다. 이 두 의

성어 모두 즐거움이나 흥겨움을 경쾌하게 표현하는 단어들이다. TT1 간체 번역의 경우에는 한국어 의성어를 비슷한 중국어 의성어로 대응시켜 번역하였다. 반면 TT2 번체 번역은 원문의 두 번째 의성어를 환언(Paraphrasing)하는 전략을 취해 “돌아라, 돌아라, 돌아라...”와 같이 풀어서 번역하였다. 같은 원문을 다른 번역전략으로 접근한 점이 흥미롭다.

『오징어 게임』 공개 이후, 특정 대사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이슈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극 중 강대호(강하늘)라는 인물이 자신의 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여하였던 용감한 해병(용사)이라고 소개하는 대사가 그 단초를 제공하였다. 베트남인의 입장에서는 “용사(勇士)”라는 단어가 당시 적군이었던 한국군인을 미화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틱톡(TikTok), 트위터(Twitter) 등의 플랫폼에서는 일부 베트남어 사용자들이 “침략자를 용사라 부르냐”, “넷플릭스는 베트남 시청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대한 시청거부<sup>12)</sup> 움직임까지도 발생하였다. 하지만 실제 베트남어 자막을 검토해 보면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번역되어 있지 “용사”의 의미와 관련된 단어는 없음이 확인된다. 정리하면 이 해프닝은 번역문이 아닌 한국어 원문 대사를 문제 삼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중국어 번역은 어떠할까?

<예시42> 5화 24:14

ST: 월남, **월남전 참전 용사**였거든요. 아버지가

TT1: 我爸是参加过**越南战争的勇士**

TT2: 他打過**越戰**

베트남어: Bố từng tham gia chiến tranh Việt Nam

TT1에서는 “용사(勇士)”로 번역된 문장이 확인되지만, TT2에서는 “그는 월남전에서 싸워본 적도 있다”와 같이 중립적인 표현으로 번역하여 대조를

12) 조선일보 2025년 1월 7일 기사 「대사 한마디 때문에... 베트남서 ‘오징어게임2’ 보이콧 움직임, 왜?」를 참조함.

보인다.

글로벌 OTT 콘텐츠가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감정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자막 번역 과정에서 역사적 민감성을 고려한 정교한 언어 선택이 필수적이다. 특히 식민지배나 전쟁과 같이 민족적 상처와 연결된 사건을 다룰 경우, 중립적이고 조심스러운 표현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의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는 번역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위 사례(베트남 전쟁 관련 용어)는 드라마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대사만을 정치적으로 확대한 트집 잡기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 콘텐츠가 세계로 진출할 때 반드시 배려하고 고려해야 할 국제 감각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해프닝도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다.

### 3. 결론

지금까지 넷플릭스 한국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중국어자막을 중심으로 그 번역특징과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중국어 자막에는 간체와 번체의 자막이 각각의 지역에서 통용되는 어휘들로 적절히 번역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시즌 1 때 간체자막에서 대만식 어휘가 빈번히 발견되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미 자막 제작 단계부터 양안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번역으로 일이 진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 시즌1 때와 마찬가지로 비속어가 여전히 순화되어 번역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번역 기술의 문제가 아닌, 중국과 대만의 방송규정이나 해당 지역에서 관습적으로 적용되는 윤리의 허용 범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다양한 비속어들은 극 중 인물의 감정과 성격을 표현하는 주요한 수단인 만큼 번역가들이 좀더 과감하게 이를 도착언어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문화소 번역에 있어서는 다양한 번역전략을 채택하여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정치적 혹은 역사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일부 어휘들은 한국과 중국 혹은 대만 측이 모두 수용 가능한 가치 중립적인 어휘로 번역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한자어의 직역으로 인한 어색함은 거의 해소됐으며, 오히려 한자라는 공통분모 덕분에 번역 효과가 극대화된 부분도 한자어 번역전략이란 측면에서 본 논문이 발견한 성과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한 몇 가지 문제를 제외한다면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번역품질은 매우 좋다. 총 7화분의 자막을 분석하면서 오역이나 어색한 번역은 매우 적었고, 발견된 문제들도 드라마 감상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이었다.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중국어 번역 수준은 시즌 1보다 훨씬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필자가 접한 한중 영상 콘텐츠 중 최고의 번역품질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모나 베이커,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 한신문화사, 2009.
- 이근희, 『번역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학사, 2005.
- 제레미 문데이, 정연일 외 옮김, 『번역학입문』, 한국외대출판부, 2006.
- 신상범, 이재성,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자막번역 전략 연구」, 『통번역교육 연구』, 2023년 제21권 1호, 2023.
- 우박혜, 이근석,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중국어 자막 분석」, 『한중언어문화연구』 제64집, 2022.
- 이재성, 「자막번역의 언어유희 번역 연구-『오징어 게임』과 『기생충』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제20권 4호, 2022.
- 정수아, 이지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폐쇄자막 연구」, 『earticle』, 2024.
- 窦云鹏, 「韩国影视剧字幕汉译策略」, 『黄山学院学报』, 第14卷, 第6期, 2012.
- 费卫芝, 「韩国电影中文字幕翻译研究」, 湖南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10.
- 王巧丽, 「变译理论视角下的影视字幕翻译研究——以韩剧『请回答1988』为例」, 『今古文创』, 第37期, 2023.
- 张晓玲, 「韩国影视剧题目的中文翻译形态研究 ——以2000~2012年678部韩国影视剧为中心」, 天津师范大学, 硕士毕业论文, 2014.
- 张玉珍, 「韩国影视剧中文翻译探讨——以剧名和台词为中心」, 中央民族大学, 硕士毕业论文, 2012.
- 庄庆涛, 「文化规约在韩国影视剧中文译本中的运用」, 『赤峰学院学报(汉文哲学社会科学版)』, 第35卷, 第9期, 2014.
- 邹恬, 「韩国电视剧字幕翻译中的错误类型研究-韩剧『我的名字叫金三顺』为例」, 吉林财经大学, 硕士学位论文, 2013.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教育部臺灣台語常用詞辭典 <https://sutian.moe.edu.tw/zh-hant/>

## Abstract

### An analysis of the Chinese subtitles of 『Squid Game2』

Chang, Shin Yeol · Lee, Kun Seok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inese subtitles (Simplified and Traditional) of the Netflix drama 『Squid Game』 Season 2, released in January 2025, to comprehensively evaluate their translation quality and identify current trends in Chinese translation for Korean video content. Building on the analysis of Season 1, this follow-up research focuses on mistranslations, awkward phrasing, the translation of various cultural elements (culturalia), and the handling of controversial dialogue. The analysis confirms that, unlike Season 1, the Simplified (mainland China) and Traditional (primarily Taiwan) subtitles were distinctly separated during production, indicating a conscious effort to cater to regional linguistic preferences. The problem of awkward literal translation of Sino-Korean words (Hanja) was largely resolved; conversely, the shared commonality of Chinese characters maximized translation effectiveness in certain areas. Furthermore, the numerous cultural elements in the drama were effectively conveyed through the adoption of diverse translation strategies. However, a drawback remains: swear words and vulgar language were generally euphemized or toned down, similar to Season 1. This phenomenon appears to stem not from technical translation issues, but from the broadcast regulations and customary ethical tolerance levels in China and Taiwan. Overall, instances of mistranslation or awkward phrasing were minimal and did not significantly impede the viewing experience. In conclusion, the Chinese translation quality for 『Squid Game』 Season 2 is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to Season 1 and is assessed as the highest quality the author has encountered among all Korean-Chinese video translations to date.

**Key words** : Squid game 2, Korean–Chinese translation, Cultural Elements translation, slang translation, netflix translation

투 고 일 : 2025. 10. 10. / 심 사 일 : 2025. 10. 15.~ 2025. 11. 15. / 게재확정일 : 2025. 11. 20.